시 론

김 영 식
남부대교수·웃음명상전문가

세대에게 웃음을 묻다

한 여름밤 모깃불을 피워놓은 평상 위에서 손자, 손녀들에게 커다란 부채를 팔랑팔랑 부쳐주며 옥수수를 한 바구니 쪄놓고 먹으면서 구수한 옛날이야기를 해 주시던 할머니가 그리워진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을 베개 삼아 상상의 날개를 폈던 아름다운 추억은 언제나 소중한 기억이다. 인간은 어려운 시절을 회상할 때 한 장의 흑백사진을 보면서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라고 한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 인생이 일장춘몽이라 아니 놀지는 무엇하리"같은 시조의 문장은 민요나 대중가요에도 등장하는 가사로 많이 활용되었다. 이런 여유로운 놀이나 웃음의 문화가 이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확산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세대 간의 웃음 코드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세는 TV 앞에 모인 가족을 해체시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이동시키고 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동영상 속의 웃음 코드는 생활 속의 '경험'과 '현실'을 바탕으로 생산 되어지고 있다.

억지 웃음보다는 사실적인 미술작품을 보는듯한 현실감이 웃음의 소재가 되고 있다. 예전 힘들고 어려운 시절 흑백 TV 앞에 모여 복싱이나 레슬링 등으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었다면, 지금 MZ 세대(밀레니얼+Z세대: 1981-2010년생)들은 자신이 영상의 창조자가 되어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신기술이나 디지털 활용에 능숙한 MZ 세대에게 사실을 기반으로 한 웃음은 더 빠르고 자극적으로 다가간다. MZ 세대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면서 웃음 코드는 소유에서 공유로 공유에서 구독으로 옮겨가며 자신이 필요한 것만 먹게 된다.

플랫폼 영상들은 순식간에 모방되고 재가공되어 공유되는 속성이 있다. "머리! 젖습니다. 옷도! 젖습니다. 신발! 젖습니다. 양말까지 젖습니다. 옷 머리 신발 양말 다 젖습니다. 물에 젖고 물만 맞는 여기는 아마존. 아, 마, 존조로존조로존~" 무명의 놀이공원 아르바이트생의 놀이기구 설명 안내 멘트다. 재치있고 반복적인 리듬에 홀리듯이 따라하게 하는 이 멘트는 우리에게 신선한 유머 코드를 또 하나 선사해주었다. 2분30초짜리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단 며칠 사이에 1천2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무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소울리스좌'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일약 유명 스타로 떠올라 광고까지 출연한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의 '우 to the 영 to the 우' 유행어의 힛트가 플랫폼 콘텐츠를 등에 업고 또 하나의 세계적인 K드라마 장르를 만들어 냈다. 5G 광속도를 사는 지금 수천 년 걸렸던 아날로그적 문화의 진화 속도는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스마트폰 세대)의 등장으로 단시간에 전파된다.

디지털 문화의 주요소비층인 MZ 세대가 만들어내는 웃음문화는 다르다. 기존 아날로그 문화 세대들의 전통적 문화 전달 방식인 놀이, 공감, 스토리텔링에 속도를 결합했다. 인간은 놀이를 통해 진화해 왔다. 즐거움과 재미가 공감을 얻고 그 스토리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할 때 '좋아요''구독''알람'이 설정되면서 속도를 얻어 급속히 전파되는 것이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 말이 짧아지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이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와의 벽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웃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AI 시대 이제 웃음 코드도 속도를 이해해야 할 시대가 됐다. 웃음도 속도다. 상대의 웃음 코드를 얼마나 빨리 읽어내느냐가 '헐~~'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지구라는 별은 인터넷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 에너지, 기후, 식량, 전쟁, 전염병 등 인간의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는 곳곳에 산재해 있다. 그렇지만 웃음을 잃지 말고 우리의 의식을 잘 진화시켜 평화로운 지구별이 되기 바라는 마음이다.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 웃음과 유머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열쇠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치칼럼

임 우 진
민선 6기 광주 서구청장

지역의 정치적 독점구조, 지역몰락의 지름길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광주는 전국평균 투표율(50.9%)보다 훨씬 낮은 37.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방선거 때마다 전국 평균수준의 투표율을 보여주었던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확실히 달라진 것은 지역 지배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왜 짧은 기간에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청년선거구 문제나 공천과정 등에서 기대만큼 투명성, 공정성과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고 해도 광주는 단체장과 지역구 시의원 당선자 전원이 민주당이다. 대구의 경우는 모두가 국민의힘이다. 양 지역 모두 절대적인 지역독점구조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통해 지역의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오랫동안 똘똘 뭉쳐 지지해 왔다. 그런 만큼 광주가 민주당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더 개혁적이고 투명하고 민주적이여야 한다. 하지만 후진적인 정치에 안주했고, 지역은 쇠퇴하고 답보를 면치 못하다 보니 절대적 지지를 해온 지역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배신감을 느꼈을 만도 하다.

그러나 특정 정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가 지역민들의 생각처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발전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지역권력의 독점으로 지역 역량과 발전을 쇠퇴시킨다는 이율배반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현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대구·경북과는 달리 정치적 독점이 왜 얼마나 나쁜 것인가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거의 없었다. 지방선거 과정의 민심 변화도 독선 정치와 뻔한 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지역의 정치권력 독점이 장기화될 때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는지,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정치권력의 장기적 독점은 지역사회의 비판기능을 약화시키고, 쉽고 편한 정치, 자기이익우선 정치로 흐르게 되어 지역정치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역량을 약화시킨다. 또한 사회는 다양성을 잃고 획일화되고, 부패와 비효율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경향은 인간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것으로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액턴 경(Lord Acton)의 말처럼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는 권력의 속성이자 철칙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첫째, 지역의 정치적 독점구조가 장기화되면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이 약화되고 지역사회는 다양성이 상실되고 획일화된다. 특정 정당이 선거직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지역사회 모든 분야를 직간접으로 지배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을 때, 언론, 의회, 시민단체, 지식인 그 누가 권력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을까? 지역사회는 지배권력의 가치와 철학에 동조되어 가고,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토론, 양보 타협의 민주적 기능은 작동되지 않게 된다.

둘째, 지역정치는 견제 비판없는 편한 정치에 안주하고, 지역정치인은 능력 성과보다는 정치세력화에 우선하고 자치행정에는 정치가 개입하게 된다. 지역 독점정당은 지역민의 전폭적 지지와 함께, 경쟁이 없어 강한 비판 견제를 받지 않는 가운데, 권력지속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힘으로 하위정치인을 지배하는 쉽고 편한 정치에 안주하게 된다. 따라서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정치 제도·행태를 개혁하지 못한다. 지역정치인은 공천에 대비한 당원모집관리, 연대협력 등 정치세력확보를 최우선하게 되고, 자치행정에 정치가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정치적 독점구조 속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도 정치적 영향력이 침투되어 각 분야 나름의 질서와 문화, 논리를 기반으로 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어렵고, 결국 지역사회 각 분야의 역량이 쇠퇴하게 된다. 우선 각 분야의 성장발전을 이끌어 갈 역량있는 주체들이 성장하기 어렵다. 또한 지역사회의 의제설정· 문제해결· 혁신역량 등도 침체되게 된다. 어떤 문제에 대한 주체적인 가치관과 확신으로 당당하게 비판하고 도전하는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는 광주·전남 37석(49%), 대구·경북 37석(44%)인데 반해 충청지역은 단 1석도 없다는 사실은 정치적 독점지역이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넷째, 지역 자치행정역량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다. 주민의 생활서비스 공급과 주민자치 역량 함양이 책무인 구청장의 경우, 지역독점정치의 후진적인 행태로 인해 선거대비 정치적 세력확대를 최우선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기초자치 발전이나 주민서비스 공급책무 수행과 상충되는 현실적 딜렘마도 지역독점 정치의 후진성 때문인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치행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상과 같은 지역독점 정치의 폐해를 깊이 인식하지 못했거나, 국민의 힘에 반사이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안했던 것이 솔직한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똑같이 지역독점정치의 피해자인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무엇보다도 시급히 개혁돼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양 지역의 희생하에 거대양당이 후진적인 편한 정치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언제까지 잘하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에 따라 정권을 맡는 불합리를 보고 있어야 할 것인가? 지역독점 정치구조야말로 지역몰락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광주와 대구를 위하고 진정한 정치발전과 선진 대한민국을 지향한다면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독자투고

타는듯한 찜통 더위 농부 개인 안전부터

연일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최고를 기록하면서 저마다 펄펄 끓는 더위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도심과 농촌이 별반 다를게 없다. 더욱이 농촌 지역의 경우 매년 여름철 혹서기에 농사일을 하던 노인분들이 고온의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열사병이나 일사병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열사병과 일사병은 뜨거운 태양에 장시간 노출되어 농사일을 할 경우 비오듯 땀을 흘리면서 혈관이 확장되지만 체내 수분함유량이 적어 탈수현상을 가져오면서 그로 인해 체온을 낮추는 신경기능의 작동이 현저히 저하되어 결국 목숨을 잃는 경우가까지 발생할수 있다고 한다.

젊은 사람이야 갈증이 나면 물을 찾아 마시게 되지만 수분함유량이 적은 노인분들의 경우 갈증을 느끼는 반사속도가 그만큼 늦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평소에도 바쁜 논농사와 밭농사일에 건강관리는 먼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보니 요즘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때에 열사병에 걸린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들이 무더위에 아무런 대비책 없이 논과 들로 나섰다가 봉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환절기인 겨울과 봄철 못지않게 여름철에도 노인분들의 건강관리는 중요하다.

무엇보다 요즘같은 땡볕엔 햇볕이 가장 강하고 뜨거운 한낮 시간대 농사일을 멈추고 체온을 충분히 낮추어 주고 필요한 농사일은 무더위가 덜한 아침이나 저녁시간대를 고르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농촌 노인들의 폭염으로 인한 발병같은 후진국형 재난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社 說

GGM 직원 주거시설 확보 '청신호' 기대된다

전국 최초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직원들의 주거시설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한다.

GGM 직원들의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300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지역전략주택 건립 공모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선정됐기 때문이다.

일자리연계형 전략주택은 광주송정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부터 총 800억원(국토부 640억원·LH 160억원)이 투입돼 1만㎡의 부지에 300호 규모의 통합 공공임대 형식으로 건립된다.

물론 국토부와 LH가 공공임대 형식으로 건립되지만 입주자 선정은 광주시장이 100% 정할 수 있는 만큼, 지역전략산업과 GGM 직원의 주거 용도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주택이 건립되면 GGM 직원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면서 보육·문화·체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단지 내에 별도 시비 약 150억원을 들여 체육시설·도서관·어린이집도 건립할 계획이다고 하니 GGM 직원들의 직장과 일상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이번 지역전략주택 공모사업 선정은 향후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임금 제공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얼마 전 GGM 최대 협의기구인 상생협의회는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하루빨리 주거의 위치, 형태, 규모, 소유 여부 등 구체적인 청사진과 일정을 담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광주시에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상생협의회는 또 "만약 광주시가 근로자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협정서 계약 미이행과 책임자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모든 합법적 절차를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직원 주거시설 확보 청신호가 올 상반기에 2만2천500대를 생산하는 등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GGM이 올해 '5만대 생산' 달성 목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GGM이 상생형 일자리 기업으로서 안착하고 성공하는데도 징검다리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휴가 막바지 코로나 재확산 선제 방역으로 이겨내야

여름 휴가철 막바지 대인 접촉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만9천790명으로 1주일 전인 지난 7일(5만3천477명)과 비교하면 1.12배, 2주일 전인 지난달 31일(4만2천883명)보다는 1.39배다. 재감염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중방역에 적신호가 켜졌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광주의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60%에 달하고,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75%를 넘어섰다. 전남의 전담 병상 가동률도 54% 수준으로 높아졌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여름 휴가철 이동량이 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코로나 4차 유행'을 경험했다. 문제는 그동안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낮춘 방역 대응을 다시 높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모처럼 영업을 회복 중인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거리두기를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확진자 수는 증가하는 데 국민들의 경각심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확진이 의심돼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숨기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감염예방뿐 아니라 치명률을 크게 낮춰주는 백신 접종률도 답보상태다.

현재 코로나 방역 대책은 백신 접종, 확진자 격리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이외에는 사실상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라도 코로나 재유행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게 고강도 과학적 방역 대책과 병상·전담 인력 확보 등 비상 의료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지난 11일 광주 5·18 교육관에 72일 만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재개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라도 국민체감에 맞는 실효적이고 과학적인 방역 체계 강화와 선제적인 방역활동이 일상화돼야 한다.

복합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답답하고 힘겹지만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견디고 극복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할 때다.

아침을 여는 詩

시장연꽃

이승현

진흙에서 피는 꽃을 연이라 부른다면
장에서 피는 꽃을 무어라 부른답니까
오늘도 한 줌 푸성귀 다듬고 있는 할머니
좌판도 없는 난간에 몇 단의 쪽파를 놓고
쏟아지는 졸음에 가끔은 수를 놓치지만
굽은 등 햇살 앉을 땐 꽃잎 벌어요, 벙시레
어스름 노을빛이 손등을 타고 흐를 때
반쯤 이운 떨이물량 바람에게 인심 쓰고
온종일 뻗었던 두 다리 연잎 접듯 접어요

(시집 '四色의 수레바퀴', 알토란북스, 2016.)

[시의 눈]

백련지는 무안에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시장에 빼곡한 난전이 바로 연밭이네요. 흰수건의 저 할머니는 얼마를 팔았을까, 다가가지요. 할머니는 땀만 팔고 있네요, 내놓을 가지수를 까먹을 밖에요. 아, 뜨거운 햇살이라도 등에 앉았다니 뭐 연꽃처럼 벙글어지긴 합니다. 할머닌 시든 푸성귀에 연신 물을 뿌리며 이웃 가게를 건너봅니다. 저 집보다 싱싱하게 보이려고 가림막 파라솔을 더 키워보려 합니다. 할머니, 그러다 녹슨 지지대 부러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난 하나마나한 말을 붙여 보지요. 그렁 꺽정일랑 말고 얼릉 사소. 싸게 줄텐께. 보자기엔 무데기 산인데도 하, '떨이물량'인 듯 그녀는 말하지요. 나는 그녀가 가르키는 무 하나를 집어듭니다.

이승현 시인은 충남 공주에서 나, 2003년 '유심' 신인상으로 등단해, 시집 '파문'(1998), 시조집 '빛·소리 그리고'(2009), '아내에게 바치는 연가'(2018) 등을 냈습니다. 그는 세상을 관조하는바, 담긴 내면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는 그 뷰파인더를 확대하는 트레킹 시인입니다.

(노창수 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CMYK